

‘27억 사나이’ 이원석, ‘FA 신화’로

삼성과 4년 총액 27억원 계약

2008년 FA 홍성흔 보상선수로 두산행 꾸준한 활약...8년 만에 모범선례 넘겨

프리에이전트(FA) 내야수 이원석(30)이 두산을 떠나 삼성에 새 동지를 둔다. 올 스토브리그 1호 FA 이적생이다. 삼성은 21일 “이원석과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15억원, 연봉 3억원 등 총 27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이원석은 김재호(두산)와 나지완(KIA)에 이은 올겨울 세 번째 FA 계약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선 두 명은 기존 소속팀에 남은 반면, 타 구단 이적은 이원석이 처음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맺은 FA 계약이다. 이원석은 2년 전인 2014년 말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군(상무) 입대를 위해 신징을 2년 뒤로 미뤘다. 그리고 9월 제대 직후 소속팀이던 두산에 복귀해 FA 자격을 다시 얻었다. 그러나 FA 신청까지는 깊은 고민이 따랐다. 전역 후 이렇다할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 이원석은 올 정규시즌에서 단 7경기 출전에 그쳤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주전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보여준 것이 많지 않았기에 FA 신청 당일까지 고민이 깊었다.

11일 FA 시장이 문을 연 뒤엔 삼성과 이원석, 양측의 입장이 빠르게 좁혀졌다. 주전 3루수가 필요한 삼성은 이원석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보다 많은 기회를 원하는 이원석 역시 삼성의 제안에 마음이 동했다. 결국 양측은 수차례 물



두산에서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이원석(왼쪽)이 4년 총액 27억원에 삼성으로 이적했다. 이원석은 올해 FA 권리를 행사한 15명 중 타 구단과 계약한 첫 번째 선수다. 계약 후 삼성 홈종합 단장과 인사를 나누는 이원석. 사진제공 | 삼성 라이온즈

말잡업을 통해 계약조건을 맞췄고, 이원석이 20일 대구로 내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원석의 이번 FA 계약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가 FA 보상선수에서 FA 계

약선수로 새로운 신화를 썼다는 점이다. 이원석은 2008년 말, 당시 FA 홍성흔이 두산에서 롯데로 이적하며 두산이 보상선수로 지목한 당사자였다. 이후 이원석은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모범

보상선수’의 선례로 자리 잡았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올겨울, 신분을 뒤바꿔 당당하게 FA를 선언해 계약까지 이르게 됐다.

발표 당일 이원석의 에이전트인 몬티 스포츠 사무실에서 만난 그의 얼굴엔 설렘과 아쉬움이 한껏 묻어있었다. 이원석은 “선수생활에서 꽃을 피운 두산을 떠나야했기에 고민이 많았다”며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눌 수 있었다. 조건 역시 구단에서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떠오른 얼굴도 있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있었다. 이원석은 “군 입대를 앞두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 사실 아버지의 꿈이 내가 좋은 조건에 FA 계약을 맺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보셨으면 행복해하셨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이원석은 새 동지를 위한 작음에 나선다. 야구인생 3막이 펼쳐진 것이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두산 구단을 찾아가 인사를 드린 뒤 대구로 내려가 새집을 장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새로운 행선지에 대한 걱정도 감추지 않았다. 고향 광주에서 야구를 시작해 부산과 서울을 거친 이원석은 이번엔 연고 없는 대구로 향하게 됐다. 그는 “사실 걱정이 많다. 삼성에는 친한 선수가 많지 않고, 대구에도 친척은 커녕 지인들조차 없다”면서도 “8년 전 두산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며 적응해 나가겠다. 꼭 새 팀에서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승부조작 혐의’ 문우람, 군검찰 구속

증거 인멸 우려해 구속수사로 전환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문우람(24·넥센)이 군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21일 ‘군 검찰이 지난 7월, 검찰 수사 결과 이태양(23·전 NO)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금품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문우람을 지난주 구속했고, 상무 소속의 또 다른 투수들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우람은 상무 소속으로 군 검찰로 이첩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군 검찰은 최근 문우람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7월에 지난해 KBO리그 4경기에서 브로커와 결탁해



문우람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감행한 혐의로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문우람이 직접 승부조작을 제의했고, 브로커와 선수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 대가로 시가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의류 등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군 검찰로 이첩된 문우람은 이후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기소된 이태양은 8월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경호 기자 nirvana@donga.com

우규민 영입전...LG보다 타구단 베풀 세다?

사이드 암 희소성에 안정적 선발투수 ML보다 국내구단 급진적 평가 높아

알짜 프리에이전트(FA)로 꼽히는 우완 선발투수 우규민(31)을 둘러싼 영입 경쟁이 뜨겁다.

2016년 스토브리그 FA시장은 11일 개막했다. 총 15명이 FA를 신청했고, 이중 각 팀이 가장 탐내는 선발투수 자원은 양현종(28), 차우찬(29), 김광현(28)과 함께 우규민까지 단 4명이다. 좌완 3인방으로 꼽히는 양현종, 김광현, 차우찬은 해외리그 진출을 고심하고 있고, 역대 최고 수준 몸값이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틈새시장에서 우규민의 가치가 점차 커졌다. 사이드 암 투수 우규민은 LG에서 군복무를 제외하고 11시즌 동안 56승 5패 65세이브 25홀드 방어를 3.74를 기록했다.

17일 메이저리그 구단이 우규민의 신분을 KBO에 조회하며 빅 리그의 관심이 공식화되기도 했다.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우규민을 선발자원으로



우규민

바라보는 KBO리그 구단의 금전적인 평가가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LG는 최근 정성재 준비한 계약 내용을 우규민에게 전달했다. LG에 입단한 지 14년차인 우규민에 대한 예우가 담긴 계약 내용이다. 선수 스스로도 국내에 남는다면 LG에서 계속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변수는 선발투수 보강이 급한 타 구단이다. FA시장에서는 A구단이 우규민에게 LG보다 높은 액수를 제안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금액 차이는 꽤 큰 것으로 알려졌다.

KBO리그 구단 입장에서 안정적인 선발로테이션 소화 가능성도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한 우규민은 위험도가 높지 않은 FA카드다. 성실하고 완만한 성격도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두산이 FA 이현승을 잡아야 하는 이유

이용찬·정재훈 수술로 마운드 약화 윤명준·허준혁 임대 앞뒤 불펜 공백

그야말로 ‘대량공백’이다. 올겨울 두산 불펜투수들의 연이은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두산은 올 시즌 완벽한 전력 가운데서도 결정 하나를 드러냈다. 불펜진이였다. 탄탄한 선발진과 막강한 타선은 KBO리그에서 단연 최고였지만, 시즌 중반 불펜투수들의 부상과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비시즌에 돌입한 뒤에도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우선 주축투수들의 수술 소식이 이달에만 두 차례 들려왔다. 15일 이용찬이 오른쪽 팔꿈치 뼈 조각 수술을 받는데 이어 20일엔 정재훈(36)이 일본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회복과 복귀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재활 경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혹은 그 이후야 마운드 복귀가 가능하다.

20대 투수들의 입대도 예정돼있다. 최종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동갑내기 투수 윤명준(27)과 허준혁(27)이 국군체육부대(상무)에 입대 지원을 한 상태다. 둘 모두 1군에서 주축으로 뛴 투수들이란 만큼 최종합격이 유력하다. 2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들의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격정은 자연스레 내년 불펜 마운드로 흐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내년 시즌 1점 차를 지킬 투수들의 이름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두산의 시선은 FA(프리에이전



이현승

트) 이현승(33)으로 향한 모습이다. 이현승은 2010년 두산 유니폼을 입은 뒤 팀의 마무리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2년간 가을야구에서 12경기 16.2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이며 팀의 KS 2연패를 이끈 일등공신으로 우뚝 섰다.

현재까지 두산은 이현승과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대신 일차적인 교감만 나눈 상태다. 그러나 현 상황은 첫 만남 때와는 다르다. 15일 FA 내야수 김재호와 재계약에 이어 21일 이원석의 삼성 이적으로 이현승은 두산에 남은 마지막 질투끼가 됐기 때문이다. 두산이 이현승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양측은 곧 다시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본사 손님

▲박종훈(프로야구 한화 단장) 임현린(* 흥보팀장) 이한성(* 흥보팀 과장) 단장 취임 인사

삼성에 이원석 왔다, 최형우는?

구단 “최형우·차우찬과 협상 진행” 해외진출 가능성 있어 밀고 당기기

삼성이 최형우(33)와 차우찬(29)의 프리에이전트(FA) 잔류계약을 마무리하기 전 외부 FA 이원석(30)과 21일 계약(4년 총액 27억원)을 발표했다.

삼성이 외부 FA를 영입한 것은 2005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심정수, 박진만 이후 12년 만이기 때문에 이원석 계약 직후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원석 영입에 성공하면서 야수 내부 FA인 최형우와 협상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구단은 이에 대해 “아니다. 최형우는 물론 차우찬과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해외진출 가능성도 있어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며 부인했다.

실제로 삼성은 최형우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스포츠동아 취재결

과, 최형우가 잔류를 고민할 수준의 조건도 제안됐다. 그러나 해외진출과 국내 타 팀의 영입 가능성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형우는 14일 시즌 MVP상사에서 최재진을 만나 밝은 표정으로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원석과 계약하면서 박석민의 빈자리를 크게 느낀 3루 포지션에서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그러나 공격부문에서 최형우의 대체전력은 될 수 없다. 최형우는 30홈런 100타점 가능한 거포다. 삼성이 그리고 있는 내년 시즌 계획은 만약 최형우와 협상이 실패할 경우 외국인타자를 통해 팀 공격 능력 보강이다. 외국인 타자 시장에서 3루 거포보다는 1루 혹은 외야 홈런타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원석은 이에 대비한 첫 번째 포석이기도 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차우찬

▲최형우

역대 FA 3명 중 2명은 원소속팀과 계약

베이스볼 브레이크

지난 시즌 후까지 총 183명 중 120명 최근엔 타팀 이적과 해외진출 증가세

이원석이 21일 삼성과 4년 계약하면서 올해 FA(프리에이전트) 시장 1호 이적 선수가 됐다. 이날까지 총 3명이 행선지를 선택했는데, 이원석 이전엔 김재호와 나지완이 각각 원소속팀인 두산과 KIA에 잔류했다.

그렇다면 역대 FA들은 얼마나 원소속팀에 잔류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했을까. FA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5시즌이 끝난 뒤였다. 그리고 지난 시즌 후까지 총 183명이 KBO에 FA 신청서를 냈다.

이들의 최종 행선지를 분석한 결과 원소속팀에 잔류한 선수는 120명으로 65.6%였다. 결국 FA 3명 중 2명꼴은 원소속팀과 계약하면서 남게 됐다는 의미다. 나머지 선수 51명(27.8%)은 국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했다. 그리고 8명은 미국과 일본 구단과 계약하며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나머지 4명은 어떤 팀과도 계약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연도별로 세분화해보면 FA 제도 도입 초창기엔 원소속팀에 잔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 다른 팀 이

적과 해외구단 이적이 다소 더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2011시즌 후부터 지난 시즌 후까지 최근 5년간 FA를 선언한 선수는 총 85명에 이른다. 그 중에 원소속팀에 잔류한 FA는 51명(60%)이며, 타팀으로 이적한 FA는 31명(36.5%)로 나타났다. 그리고 3명(3.5%)은 해외 구단으로 이적했다.

2011시즌 후 10명은 원소속팀 잔류, 6명은 국내 타팀 이적, 1명은 해외 이적(이대호 롯데→일본 오릭스)을 선택했다. 이어 2012시즌 후엔 원소속팀 잔류 6명에 국내 타팀 이적 5명이었다. 2013시즌 후엔 원소속팀 잔류 9명에 국내 타팀 이적 6명, 해외 이적 1명(윤석민 KIA→미국 볼티모어)으로 나타났다.

역대(2000~2016년) FA 잔류 및 이적 현황

FA	잔류	국내 이적
183건	120건(65.6%)	51건(27.8%)
	해외 이적	미계약
	8건(4.4%)	4건(2.2%)

2014시즌 후엔 FA 19명 중 해외 이적 없이 원소속팀 잔류 12명, 국내 타팀 이적 7명이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후 역대 최다인 22명이 FA를 신청했는데, 해외 이적 1명(김현수 두산→미국 볼티모어)을 제외하고 나머지 21명 중 원소속팀에 14명이 잔류하고, 7명이 국내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총 15명이 FA를 신청했다. 21일까지 2명은 원소속팀에 잔류하고 1명이 이적했다. 과연 남은 선수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